

“다저스 최고의 보강 옵션 류현진 3년 5500만달러” (약 642억 원)

다저스웨이 “범가너 3년 4800만달러”

류현진(32·LA 다저스)은 미국 현지에서 올 시즌 내내 극찬을 받았다. 그러나 프리 에이전트(FA) 자격을 획득하자 곧장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 따르고 있다.

메이저리그는 계약 총액 3억 달러(약 3504억 원), 연봉 3000만 달러(약350억) 이상의 슈퍼스타들이 존재하는 무대다. 그러나 부상 전력이 있는 30대 중반 투수와 장기 계약에는 빅마켓 팀들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LA 다저스 전문매체 다저스웨이 마이클 윌트먼 기사는 30일(한국시간) 류현진이 포함된 스토브리그 FA 선발투수 톱3의 계약을 전망했다. 매체 특성상 철저히 다저스의 시각으로 전력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월드시리즈(WS)를 치르고 있는 특급 FA 게릿 폴(휴스턴), 역시 WS에 참가 중이며 오피트 아웃을 선언해야 FA가 되는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워싱턴)를 제외한 다저스에 필요한 톱3 FA 선발 투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저스웨이는 “류현진은 아쉽게 내셔널 리그 사이영상을 놓칠 것 같지만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신인지명권 양도가 필요 없는 FA라는 장점도 있다”고 칭찬하면서 “2020시즌에 33세가 된다. 올해는 건강했지만 그동안 부상이 잦았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다저스 최고의 선발 보강 옵션은 류현진의 단기 계약”이라고 분석하며 3년 5500만 달러를 예상했다. 약 642억 원이다. 이 매체는 나머지 2명으로 뉴욕 메츠 잭 힐러(29), 샌프란시스코 매디슨 범가너(30)를 함께 언급했다. 계약 전망은 힐러 4년 6400만 달러, 범가너 3년 4500~4800만 달러였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김광현 ML 갈까 | ▶1면에서 계속

이렇다보니 선수와 구단 모두 조심스럽다. 김광현으로선 결과물이 필요한 팀 사정을 고려했을 때 MLB 진출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기가 어렵다. 이에 손차훈 SK 단장은 김광현의 국가대표팀 합류에 앞서 한 차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 손 단장은 30일 “광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시즌 전과 마찬가지로 MLB 진출이 자신의 꿈이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프리미어 12가 큰 대회인 만큼 당분간 대표팀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더라. 대회가 끝난 뒤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산의 통합우승에 기여한 조쉬 린드블럼도 빅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MLB닷컴 칼럼니스트 존 모로시는 이날 SNS를 통해 “자유계약선수인 린드블럼이 한국시리즈 우승 후 메이저리그 구단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며 “2018시즌 SK에서 우승을 거두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메릴 켈리와 비교된다”고 전했다. 린드블럼은 올 시즌 30경기에 나서 194.2이닝 ERA 2.50에 20승을 수확했다.

스트라스버그 역투·홈런 3방 ‘반전의 드라마’

(8.1이닝 7K·2실점)

(5회 이트 동점포·소트 역전포·7회 렌던 썬포)

홈런 더 많이 친 워싱턴 짜릿한 승리 원정팀 100% 승리 WS 새 공식 주목 홈런에 또 무너진 벌랜더 WS 6패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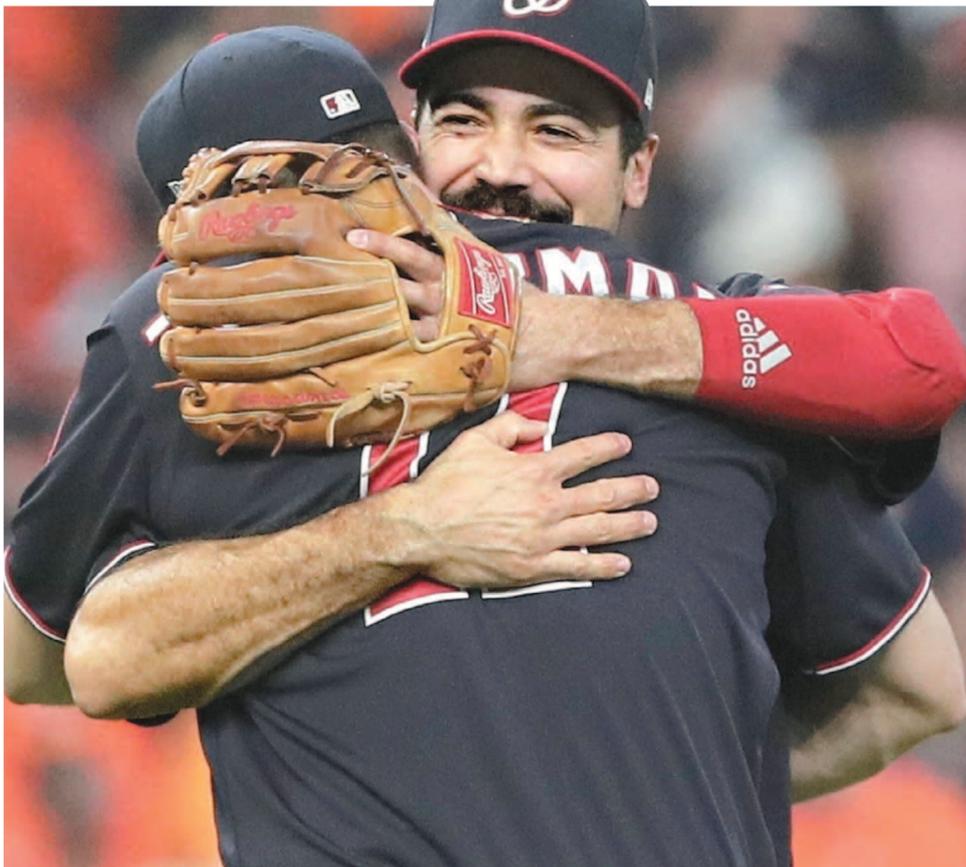
올해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WS)는 결국 7차전 끝장승부로 치러진다. 내셔널리그 챔피언 워싱턴 내셔널스와 아메리칸리그 챔피언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6차전까지 3승3패로 팽팽히 맞섰다. 7차전은 31일 오전 9시 8분(한국시간) 휴스턴의 안방 미닛메이드파크에서 시작된다.

워싱턴은 30일 미닛메이드파크에서 열린 6차전 원정경기에서 홈런 3방을 앞세워 휴스턴을 7-2로 꺾었다. 8.1이닝 5안타 7삼진 2실점으로 역투한 워싱턴 선발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는 이번 포스트시즌(PS) 5승째(무패)를 거둔 반면 5이닝 5안타 3실점에 그친 휴스턴 선발 제스틴 벌랜더는 이번 시리즈 2패를 포함해 WS 통산 무승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7차전은 워싱턴 맥스 슈어저-휴스턴 잭 그레인키의 선발 맞대결로 펼쳐진다.

●6차전까지 관통한 홈팀 패배

‘홈팀 패배·원정팀 승리’의 희한한 공식이 6차전에서도 되풀이됐다. 원정 1-2차전 연승 후 홈 3~5차전 연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워싱턴이 적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0년만의 첫 WS 진출을 넘어 첫 우승까지 달성하고픈 워싱턴의 의지가 7차전을 불렀다.

가장 최근의 WS 7차전 승부는 2년 전 휴스턴의 창단 첫 우승 당시였다. LA 다저스와 맞붙은 7차전 원정경기에서 휴스턴은 5-1 승리로 다저스타디움을 침묵에 빠트렸다. 시카고 컵스가 ‘염소의 저주’를 풀 2016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짍수 해 우승’을 이룬 2014년 WS의 마침표도 7차전 원정팀이 찍었



워싱턴 앤서니 렌던(뒤)과 라이언 짐머맨이 30일(한국시간) 미닛메이드파크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6차전 원정경기에서 휴스턴을 7-2로 꺾은 직후 포옹으로 기쁨을 나누고 있다. 렌던은 7회 썬포 2점홈런을 포함해 3안타 5타점의 맹타로 승리의 주역이 됐다. 휴스턴(맥스 슈어저) | AP뉴시스

다. 2011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만 홈 7차전에서 우승 축포를 터트렸다.

●또 홈런으로 희비 갈린 6차전

홈런을 1개라도 더 친 팀이 이기는 공식 또한 지켜졌다. 5차전까지 워싱턴은 2개(2점)-3개(4점)-0개-0개-1개(1점), 휴스턴은 1개(1점)-2개(3점)-1개(1점)-2개(6점)-3개(6점)의 홈런을 날렸다. 6차전에서 워싱턴이 3개(4점), 휴스턴이

1개(1점)의 홈런을 주고받았다. 워싱턴은 1-2로 뒤진 5회 애덤 이튼과 후안 소토의 솔로홈런 한방씩으로 전세를 뒤집은 뒤 3-2로 앞선 7회 앤서니 렌던의 썬포 2점포로 대세를 장악했다.

●벌랜더의 WS 무승 징크스

벌랜더는 이날 경기까지 PS 통산 31경기에서 14승11패, 평균자책점(ERA) 3.40을 기록했다. 이름값에 어울리는

성적표다. 그러나 WS로만 좁히면 얘기가 크게 달라진다. 이날 패전을 포함해 7경기에서 승리 없이 6패, ERA 5.68이다. 시즌 최우수선수(MVP)와 투수 최고의 영예인 사이영상을 한 차례씩 거머쥔 대투수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올해로 만 36세인 노장 투수가 WS 첫 승을 신고하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을지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슈어저 몸 풀자 경기장 술렁...렌던은 투런 광!

희비 가른 혼돈의 7회초

쓰리피트 침범 터너, 수비 방해 아웃 기계적아웃 선언 KBO에 좋은 교훈

워싱턴 내셔널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월드시리즈 6차전을 치른 30일(한국시간) 미닛메이드파크. 3-2로 앞선 가운데 7회초 공격에 나선 원정팀 워싱턴

의 불펜이 갑자기 어수선해졌다. 7차전 선발로 유력했던 맥스 슈어저가 몸을 푸는 장면이 목격됐다.

목과 등 통증 때문에 예정됐던 5차전 선발을 건너뛴 슈어저의 등장은 6차전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기에 충분했다. 5차전까지 2승3패로 뒤져 벼랑 끝에 선 데이브 마르티네스 워싱턴 감독이 여자하먼 슈어저도 마운드에 올려 배수의 진을 치려는 의지가 전해졌을까. 워싱턴은 곧 이어진 불운한 상황마저 극복하고

2점을 더 달아날 수 있었다.

선투타자 안 고메스의 우전안타로 얻은 무사 1루 기회. 여기서 다음 타자 트레아 터너는 3루쪽으로 빗맞은 내야땅볼을 쳤다. 타구를 잡은 휴스턴 투수 브래드 피콕의 송구가 1루수 율리 구리엘의 글러브를 지나치면서 주자는 무사 2·3루. 그러나 샘 홀브룩 구심은 타자주자 터너의 쓰리피트라인 침범과 수비방해를 선언했다. 터너는 아웃됐고, 고메스는 1루로 되돌아왔다. 비디오판독을 통해 터너가 구리엘의 포구를 방해한 것이 확인됐다. 쓰리피트라인 침범에 대해 ‘기계적인’ 아웃만을 선언해온 율

시즌 KBO리그와는 분명 다른 모습이 었다.

무사 2·3루가 1사 1루로 변하고, 설상가상 그 다음 타자 애덤 이튼은 3루수 플라이로 몰려나 워싱턴의 기세가 한풀 꺾인 듯한 흐름이었다. 그러나 2사 1루서 앤서니 렌던은 바뀐 투수 윌 해리스의 2구째 한복판 커터(시속 147km)를 좌월 2점포로 연결했다. 분이 덜 풀린 마르티네스 감독은 공수교대 순간 홀브룩 구심에게 다시 거칠게 항의하다 퇴장 당했지만, 워싱턴은 최종 7-2 승리를 거두고 31일 7차전 끝장승부를 성사시키는 데 성공했다.

정재우 기자

가수 상위 1%가 전체 가수 소득 절반 ‘양극화’ 심각

2016년엔 전체의 52%·2017년엔 49% 차지 김두관 의원 “소득 분배·납세 구조 점검 필요”

높은 인기를 누리는 상위 1%의 가수들이 전체 가수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며 심각한 양극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가수업종 사업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해당 3년 동안 가수 업종의 총 사업수입은 1조 821억원, 총 사업소득은 7963억 원이었다. 이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이들의 사업소득은 3874억 원으로, 인기를 누리는 소수 가수가 전체 가수 사업소득의 절반가량을 벌어들였다.

사업소득은 전체 매출액에서 사무실 임차료와 코드네이터, 운전기사, 사무실 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또 이번 자료상 가수는 연예기획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과 아이돌 그룹 등을 말한다.

시기별로 보면, 2017년 가수업종으로 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2758명이다. 이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28명의 소득은 1365억 원으로, 전체의 48.7%였다. 2016년에도 2328명 중 23명이 1564억 원을 벌어들여 절반 이상인 52.2%의 비중을 나타냈다. 2015년에는 2117명 중 21명이 945억 원의 소득을 올려 전체의 43.7%로 나왔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017년 48억7500만 원, 2016년 68억 원, 2015년 45억 원 수준이다.

이른바 ‘잘 나가는’ 극소수 인기가수가 전체 가수 사업소득의 대부분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어느 정도 해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합계
신고사업자 수	2117명	2328명	2758명	7203명
사업소득	2162억 원	2998억 원	2803억 원	7963억 원
상위 1%	945억 원	1564억 원	1365억 원	3874억 원
상위 1% 소득 비율	43.7%	52.2%	48.7%	48.7%

의 인기를 보유하고 있어 티켓 파워가 확실한 가수들의 경우에는 콘서트 투어와 파생 사업 등으로 소득을 올릴 창구가 더욱 늘어났 것으로 분석된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적지 않은 가수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토로한다. 김두관 의원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소수 상위 수입자와 전체 종사자 수입 구조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소득 분배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고소득 가수들의 성실한 납세 의무 역시 강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상위 소득자들은 탈세 등 논란이 없도록 납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